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 246 회 제 1 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1월 05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및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 1면
1.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면
2.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및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남진근 의원 외 19명 발의) ····· 3면
3. 회의록 서명의원(김찬술, 문성원) 선임의 건 ····· 4면
4. 휴회의 건 ····· 5면
· 5분 자유발언(구본환 의원, 문성원 의원, 우애자 의원) ····· 5면

(10시 12분 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오국희 대표 외 일곱 분과 대전시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10시 13분)

○**의장 김종천**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각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영각**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0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10월 2일 당면현안과 향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을 논의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10월 4일 Safe대전 안전체험 한마당과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참여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10월 14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대전시의 4차 산업혁명 전략 고도화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67건으로 이 중 의원발의 의안은 27건,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32건,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은 8건입니다.

이 중 66건의 안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는 결의안 1건과 의사진행 관련 3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추경 예산안과 일반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39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4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3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및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 (남진근 의원 외 19명 발의)

(10시 16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및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남진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남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및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역사의 굴절 속에서 부침을 거듭해 오다 1991년 3월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마침내 부활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이 지역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확산에 기폭제가 되었고,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등 더욱 성숙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28년의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은 자치분권 실현이나 지방의회 발전의 디딤돌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국회에 상정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또한 지방의회의 위상이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미미하고 보수적인 상황이다.

지역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로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고,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니만큼 자치분권이 시대적 최우선 과제임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자치분권은 단순히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이 아니라 국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경영원리로, 급속히 다원화되고 세계화되어 가는 시대에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주민복리를 실현하고 능동적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규범인 것이다.

이처럼 자치분권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주민주권에 기반한 지역 공동체 실현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하고 진정한 풀뿌리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사회적 혁신의 주체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제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당의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인해 「지방자치법」 개정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개선은 뒷전으로 밀려 제20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될 상황에 직면해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소명의 준엄함을 자각하여 이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자치분권은 주민의 참된 주권 실현을 위해 더 이상 피하거나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다.

중앙정부와 국회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실질적으로 분산하는 자치분권을 반드시 추진하라.

하나,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주민의 권익과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담은 지방의회법을 즉각 제정하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열아홉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및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종천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소명의 준엄함을 자각하여 이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강력히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및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김찬술, 문성원) 선임의 건

(10시 23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김찬술 의원님과 문성원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휴회의 건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구본환 의원, 문성원 의원, 우애자 의원)

(10시 24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즉, 관평, 전민,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이 적격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대전시는 본격적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촌동 대전하수처리장과 오정동 위생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부근으로 2025년까지 이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536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이 노후화되어 대수선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금강유역 오염에 따른 방류수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당초 도시외곽에 건설되어 악취저감시설 계획까지 미진하여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단지, 제2매립장 확충, 반려동물공원 및 유기견동물보호센터 등이 들어서고 연이은 하수처리장 이전 소식에 구즉동 주민들의 거부감이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왜 우리지역에만”이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구즉동과 전민동 양쪽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시의원으로서 사업의 취지 및 필요성은 깊이 공감하나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또한 매우 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에 반대하기도 선뜻 동의하기도 힘든 심적 고뇌가 상당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시가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자원순환단지, 제2매립장 확충, 반려동물공원, 동물보호센터, 위생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이전 및 확충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해당 실·국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표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련의 사업들과 같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대화의 창구를 기획조정실로 일원화하여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 본 사업에 대해 주민들과 좀 더 많은 대화를 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방법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설명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생각과 이견에 대해 마음을 열고 겸허한 자세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균형 발전과 형평성 차원에서 구즉동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시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환경기초시설을 통합하고 구즉동 인근 지역에 조성하였습니다만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전시 전체의 환경복지에 대한 반대급부로 구즉동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결정될 시행업자와 긴밀히 협업하여 지역 주민들이 염려하는 악취 및 환경성 문제를 원천차단하여 의구심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 사업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성구 구즉동에 집중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이 몰리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시 차원의 형평성 있는 주민지원정책 및 적극적인 예산배정을 당부드리며 또한,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은 구즉동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대화의 창구를 기획조정실로 일원화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대전시와 대덕구 간에 대전산업단지 내 청소, 오물처리 업무를 가지고 양 기관 간에 이해가 충돌되고 갈등의 양상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함께 풀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예시로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는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기관의 산업단지 관리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덕구에서는 산단 내 청소, 오물 수거·처리 업무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중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조례」의 산업단지관리업무 제9항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산업단지 관리기관, 즉 대전시에서 산단 내 청소, 오물 수거·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청소 등의 업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대전시는 관련 법령에서 산업단지 내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업무에 대하여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어떠한 의무규정도 없으며 산업단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질의회신 내용에도 동 사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회신하고 있어 그동안 법령해석 등의 오류로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수행해온 대덕구 소재 산업단지 내 청소, 오물 수거·처리 업무를 대덕구에서 수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두 기관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 현재 대전산업단지 내에는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 오물 등이 쌓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리기관에서 대전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무기계약직 2명을 채용하여 도로 등 청소와 무단투기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인력 부족으로 도로 곳곳에 폐기물이 쌓여 있으면서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각종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발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대전시와 대덕구 간의 이해관계 충돌과 업무 회피로 인해 산단 내 관계자

들과 주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덕구의 4개 산업단지가 적게는 26년, 길게는 5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입니다.

대구광역시나 인천광역시의 경우처럼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나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최근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이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고 이의 원인제공자로 노후산업단지가 지목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후산업단지에 청소와 환경을 포함한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시장님의 결단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대덕구 대화동 대전산업단지를 비롯해 대덕산업단지는 지금의 대전경제를 일궈낸 주역이자 대전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런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가 청소, 오물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해 대덕구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대전시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대전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소 업무가 자치구의 업무가 맞지만 어려운 재정상황을 겪고 있는 자치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부 기초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청소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있음을 볼 때 현재 대덕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대전시가 대전산업단지 내 청소, 오물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산단 내 청소, 오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발언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전본부장 홍보대사 오국희 님, 김선경 님, 백승주 님, 이소영 님, KTJ 인구방송 이정훈 감독님, 이우승 교수님, 굿처치뉴스 양기모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대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초저출생 고령사회에 따른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어려웠던 시기, 우리 민족은 수많은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자식과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또한 고향과 나라, 민족을 지키며 고도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 시절 정부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 등을 통해 산아제한정책을 펼쳤습니다.

1981년 약 86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1985년에는 약 65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당시 펼쳐진 인구정책은 현재 주 임신 연령층의 감소 등을 야기하며 우리 사회의 인구절벽, 인구붕괴의 원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89개가 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교육부는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도시 지역의 240명 이하 초등학교와 300명 이하의 중학교는 통폐합 대상에 해당되어 대전에서는 서구 평촌동에 위치한 기성초등학교 길헌분교의 존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이 대전시의 경우 전국 평균인 0.98명에도 못 미치는 0.95명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대전의 인구는 2013년 154만 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2월 150만 명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올해 9월 인구는 147만 명으로 그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또한, 대전세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전시에서 세종시로 이주한 인원은 약 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 대전시는 그저 방관만 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대전시의 인구정책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임을 말씀드리며 대전시가 더 나은 인구정책을 펼치기를 제안합니다.

첫째, 대전시의 인구정책과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 실현가능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인구정책과 관련한 전문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은 물론이며 교육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현장 중심의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둘째, 인구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지난해 총 76회의 인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해 결혼과 출산 등의 인식 개선으로 초저출생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족,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제안으로 현재 야기된 초저출생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노력을 시작으로 하여 더욱 적절한 정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인구정책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적절한 정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종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회원님을 비롯한 대전시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종천	윤용대	문성원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조성칠	홍종원
권중순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김소연	민태권	오광영	정기현
구본환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승호	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의사담당관	최영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행정부시장	정윤기
정무부시장	김재혁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소방본부장	김태한
트램도시광역본부장	박제화
대변인	김기환
감사위원장	이영근
정책기획관	임재진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인재개발원장	임 묵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부교육감	남부호
기획국장	임태수
교육국장	임창수
행정국장	신경수
감사관	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